



2020년 6월 7일(제985호) 지극히 기뻐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으로 일치되는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나요? 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성호경은 신앙 고백이자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삼위일체를 고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힘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신앙의 신비이자 한 분이신 하느님의 ‘존재 모습’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묵상해야 할 메세지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완벽한 일치로 계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이 우리 사회와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의 원리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결정 속에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가족은 한마음을 지닌 참된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일생과 연결됩니다.

한 신학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고유한 분이시나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뜻을 이루시기에 서로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하느님 모습이 부부, 부모·자녀, 사회 안에서 구현될 때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구현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뜻을 같이하며,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역, 학교, 교회, 마을, 가정, 이웃, 또래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우리 모두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으로 일치 시켜 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음에 오시어 영원토록 머무시기를,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박희진(요셉) 신부
이기지(27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탈출 34,4ㄱ-6.8-9
회답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제 2 독 시 2코린 13,11-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 음 요한 3,16-18

영성제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지황 사바



성인명: 지황 사바 (池璜 Saba)

신분: 밀사, 순교자

활동연도: 1767-1795년

‘지황’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지황(池璜) 사바는 1767년에 한양의 궁중 약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원하여 교리를 배웠다. 본래 성격이 순직하고 부지런하였던 그는, 천주교에 입교하자마자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만 열중하였고, 하느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협이나 궁핍, 고통을 당할 때에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직자 영입 운동이 재개된 1793년에, 이미 북경을 다녀온 적이 있는 윤 바오로와 지 사바와 박 요한이 밀사로 선발되어 함께 조선의 국경으로 가게 되었다. 지 사바와 박 요한은 조선의 사신 행렬에 끼어 북경으로 향하였고 윤 바오로는 그곳에 남았다. 북경에 도착한 지 사바는 얼마 안 있어 구베아 주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때 지 사바의 신심에 감명을 받은 구베아 주교는 뒷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우리는 1793년에 지황의 신앙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일간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견진과 고해와 성체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교우들은 그의 신심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1794년 초, 구베아 주교는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이에 지 사바는 주 신부와 만나 약속 장소를 정한 뒤, 각각 다른 길을 통해 국경으로 가서 상봉하였다. 그러나 감시가 심한 데다가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려야 하였으므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져야만 하였다.

지 사바는 이후 조선으로 귀국하였다가 다시 국경으로 가서 주 야고보 신부를 만났으며, 12월 24일(음력 12월 3일) 밤에 그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 다음 윤 바오로와 함께 주 신부를 안내하여 12일 만에 한양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나 곧 주 신부의 입국 경위가 밝혀지고, 그의 입국을 도운 밀사인 윤 바오로와 지 사바도 체포되고 말았다.

윤 바오로와 최 마티아와 지 사바는 체포된 날부터 포도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이때 그들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굳은 인내와 결심,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은 박해자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들은 주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수없이 형벌을 가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천상의 기쁨이 넘쳐 얼굴에까지 번졌다. 이제 박해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때려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윤 바오로와 지 사바와 최 마티아는 그날로 사정없이 매를 맞고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때가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이었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아버지



밤이면
자신의 빛으로.
안개 가옥한 날엔
소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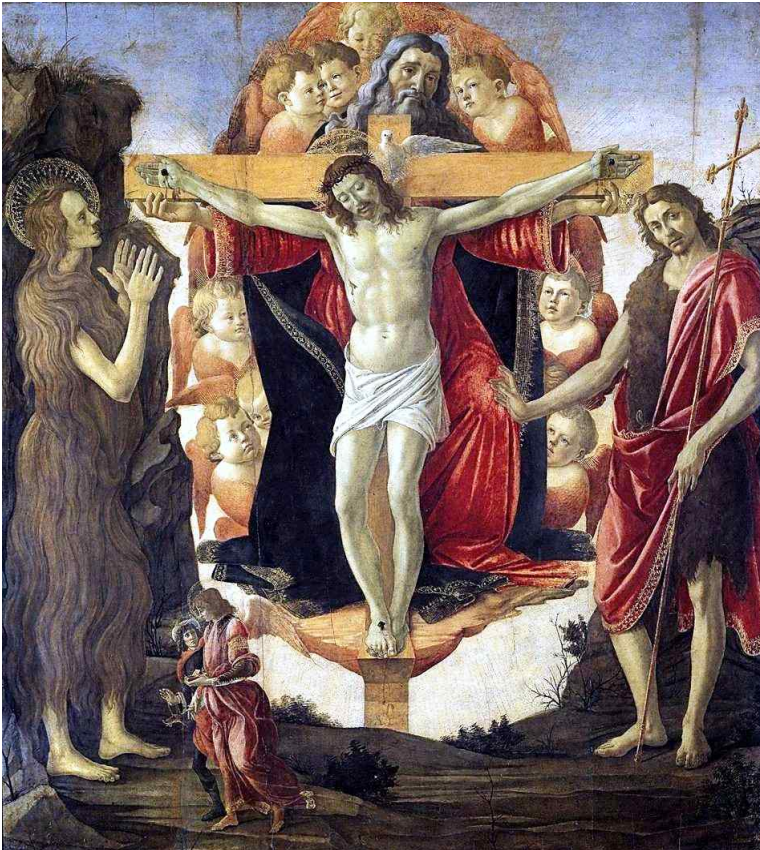
오가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등대.

하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의 위로도 없이
홀로 자리를 지키는 등대.

꼭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상화이야기

상삼위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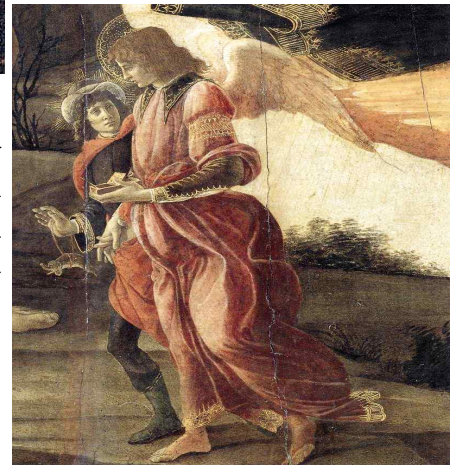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비너스의 탄생으로 잘 알려진 보티첼리이지만, 피렌체를 한때 휩쓸었던 금욕주의를 주창했던 사보나롤라의 영향으로 깊은 신심이 느껴지는 다소 어둡고 금욕적인 그림도 제작하였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사막에서 고행하고 지냈다는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세례자 요한 성인 사이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들고 계신 하느님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같이 그려져 있다. 상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이 도상은 하느님의 붉은 의복으로 인해 얼핏 보면 새빨간 심장처럼 느껴진다. 십자가 예수님의 손과 발 부분에는 흘러내린 붉은 피가 굳어져 있다.

보티첼리, 1491년~1493년 제작

피넬 위 뎀페리, 215×192cm / 린넨, 코몰드 갤러리

하단에는 토빗서에서 토빗의 아들 토비야를 안내하는 라파엘이 자그마하게 그려져 있고, 토비야는 손에 물고기를 들고 있다.(토빗서 참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라파엘 성인은 이 그림을 후원한 수도회와 성당의 주보 성인이고, 세례자 요한은 피렌체의 주보성인이다.



김은혜(앨리스아트)

시부도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한 14,9)”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삼위일체 대축일: 이기지 박혁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제68차 주교영성모임
 때·곳: 6월 8일(월)~9일(화),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 국장회의
 때·곳: 6월 9일(화) 17: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